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결산 자료

- 목차 -

- I. 개요
- II. 결산
- III.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 IV. 아시아프로젝트마켓 결산
- V. 아시아영화펀드 결산
-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
- VII. 플랫폼부산 결산
- VIII. 포럼 비프 결산
- IX. 커뮤니티비프 결산
- X.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 XI. 시상

I. 개요

1. 기본 개요

- 기간: 2019년 10월 3일(목) ~ 12일(토)
- 85개국 299편 상영
- 상영관: 6개 극장 37개 스크린 (마켓 및 P&I 스크리닝 상영관은 제외)
영화의전당, CGV 센텀시티,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메가박스 해운대(장산),
동서대학교 소향씨어터, 롯데시네마 대영

2. 총 관객수: 189,116명

3. 월드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 월드 프리미어: 118편 /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7편

4. 프로그램 이벤트

- 오픈토크 9회
- 야외무대인사 22회
- 마스터클래스 1회
- 핸드프린팅 2회
- 짧은 영화, 긴 수다 3회
- 스페셜 토크 14회
- 기자회견 7회
- 부산시민공원 특별상영 10회

II. 결산

1. 아시아영화의 수작 발견

베트남, 파키스탄 등 세계무대에서 소외된 지역의 재능 있는 감독과 작품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면서 아시아영화의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비교적 영화산업의 규모가 작아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국가들 작품이 뉴 커런츠와 아시아영화의 창 섹션에서 약진이 돋보였다. 또한 이는 다양한 영화 세계를 경험하려는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 폭넓은 관객층의 참여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센텀시티 일대 극장 외에도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부산시민공원에서 10편의 영화를 저녁마다 상영하였다. 더욱이 올해 남포동에는 영화제 공식상영을 비롯한 커뮤니티비프의 다양한 영화관람을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 폭넓은 관객층의 존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하는 오픈시네마는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며 매진을 기록한 작품도 있었다.

3. 커뮤니티비프의 성공적인 안착

작년에 신설된 커뮤니티비프는 영화제 안의 영화제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영화인들과 시민들이 격 없이 만났던 초창기 영화제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관객과 영화제 사이에 요구되는 상호활동적인 방식의 대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문화 허브이자 관객 친화적 플랫폼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4.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아시아필름마켓

작년 대비 22% 증가한 2,188명의 참여와 작년보다 17% 증가한 200개 업체가 부스에 참가해 다양한 콘텐츠의 홍보 및 판권 거래를 진행하였다. 방송판권 거래에서는 200만불 이상의 상담 규모를 기록하였고, 역대 최대 규모의 유럽권 세일즈사도 참가하였다. 다양한 피칭행사에는 역대 최대의 미팅 횟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으며, 올해 처음 열린 아시아콘텐츠어워즈는 전석 매진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Ⅲ.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1. 아시아필름마켓 결산 통계

- 마켓배지: 총 56개국 983개사 2,188명
- 세일즈부스: 총 34개국 200개사 86개 부스
- 마켓스크리닝: 총 11개국, 37개 업체, 62편, 72회 상영 (마켓프리미어 47편)
- * E-IP마켓의 북투필름과 E-IP피칭 그리고 아시아IP쇼케이스는 역대 최대 수치인 568회의 미팅 진행

- 참가자, 작년 대비 22% 증가하며 성공적으로 폐막
- 한국 방송사의 신규 참가 그리고 유럽 세일즈사의 역대 최대 참가
- 북투필름·E-IP피칭 선정작, 역대 최대 수치인 568회의 비즈니스 미팅 진행
- 제1회 아시아콘텐츠어워즈 개최, 전석 매진

2. 2019 E-IP어워드 수상작 (작품명 | 판권사 | 작가)

[쇼박스 초이스 어워드 - 북투필름]

- 옆집에 킬러가 산다 | 캐비넷(올댓스토리) | 김성희
-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 (주)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 박막례, 김유라

[쇼박스 초이스 어워드 - E-IP피칭, 웹툰]

- 디자이너 | 재담미디어 | 해출링
- 크리스마스는 짬과 함께 | (주)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 루시드

[토리코믹스 어워드 - E-IP피칭, 웹툰]

- 구름이 피워낸 꽃 | 대원씨아이(주) | 비온후
- 미스터리 | 스토리컴퍼니 | 박범수(글), 천진희(그림)
- 크리스마스는 짬과 함께 | (주)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 루시드

[토리코믹스 어워드 - 북투필름]

- 세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점프의 횟수 | 안전가옥 | 심너울

[유니온SuperIP상 - E-IP피칭, 웹툰]

- 이츠마인 | 와이제이코믹스 | 렉스 | 웹툰

[E-IP관객상 - 북투필름]

- 옆집에 킬러가 산다 | 캐비넷(올댓스토리) | 김성희

3. 아시아콘텐츠어워즈 수상자 (수상자/작 | 국적 | 작품)

[신인상]

- 케미사라 팔라데시 배우, 사난타чат 타나팃피잘 배우 | 태국 | <호르몬 시리즈>
- 김용호 감독, 장다페이 배우 | 중국 | <니시아안중적산척화해양>
- 모리타 미사토 배우 | 일본 |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

[인기상]

- 팡 룡 배우 | 싱가포르 | <팩컬티>

[작가상]

- 루시유안 프로듀서 및 작가 | 대만 | <아문여악적거리>
- 박해영 작가 | 한국 | <나의 아저씨>

[남자 배우상]

- 레이시아인 배우 | 중국 | <장안십이시진>
- 김남길 배우 | 한국 | <열혈사제>
- 야마다 타카유키 배우 | 일본 | <살색의 감독 무라니시>

[여자 배우상]

- 야오첸 배우 | 중국 | <도정호>
- 마야 살바도르 배우 | 필리핀 | <와일드 플라워>

[공로상]

- 이혜민 감독 | 중국 | <비호지장행극전>

[베스트 아시아 드라마]

- <호르몬 시리즈> | 태국

- <팩컬티> | 싱가포르

[베스트 크리에이티브]

- 김영규 총괄 PD | 한국 | 스튜디오드래곤 <미스터 션샤인>

[특별상]

- 김재중 배우 및 가수 | 한국

IV. 아시아프로젝트마켓 결산

1. 아시아프로젝트마켓(APM) 결산 통계

- 총 선정 프로젝트 수: 15개국 29편
- 공식 비즈니스 미팅 횟수: 총 796건
- 총 참가자 수: 127개 업체 144명

* 지난 해보다 약 8% 증가한 비즈니스 미팅 수치로 다시 한번 명실상부 아시아 최대의 공동제작 마켓임을 입증

2. APM 어워드 수상 결과 (수상 프로젝트 | 감독명 | 프로듀서명 | 제작국가)

[부산상]

- 고독의 지도 | 나카이 노에미에 | 와타나베 사치 | 일본

[마스어워드]

- 택배원은 문을 두 번 두드린다 | 후지아 | 다니엘 위 | 중국

[CJ엔터테인먼트어워드]

- 포르노 스타 | 앙트와넷 자다운 | 비앙카 발부에나, 댄 빌레가스 | 필리핀

[롯데어워드]

- 딸에 대하여 | 부지영 | 제정주 | 대한민국

[한국콘텐츠진흥원상]

- 동충, 하초 | 강상우 | 한선희 | 대한민국

[아르떼상]

- 모어 | 자낫 알샤노바 | 줄리아 킴 | 카자흐스탄

[노르웨이사우스필름펀드상]

- 청춘의 결 | 애쉬 메이페어 | 썬 티 빅 응옥 | 베트남

[모네프상]

- 아이 | 강동헌 | 정연 | 대한민국

V. 아시아영화펀드 결산

1. 2019년도 아시아영화펀드(ACF) 지원 내역 - 총 17편

- 장편독립 극영화 인큐베이팅펀드 총 3편

아시아 프로젝트 1편, AFA 프로젝트 2편 - 각 1천만원 지원

- 장편독립 극영화 후반작업지원펀드 총 4편

아시아 프로젝트 2편, 한국 프로젝트 2편 - 후반작업 현물지원 (D.I. (color grading), Final Sound Mixing, English Subtitle Spotting, and D-Cinema Packaging)

- 장편독립 다큐멘터리AND펀드 총 10편

아시아 프로젝트 4편, 한국 프로젝트 6편 - 각 1천만원 지원

2. 아시아영화펀드(ACF)의 성과

- 후반작업지원펀드 신규 협력 파트너의 참여

- DI 업체
 - ◆ 알고리즘 미디어랩 - 한국 프로젝트 1 편 (<이 세상에 없는>)
 - ◆ 주식회사 아이유노글로벌 - 한국 프로젝트 1 편 (<남매의 여름밤>)
 - ◆ C-47 포스트 스튜디오 주식회사 - 아시아 프로젝트 1 편 (<호텔 너바나>)
- 사운드 후반작업 업체
 - ◆ 두력 - 한국 프로젝트 1 편 (<남매의 여름밤>)

3.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총 12편 - 극영화 9편 (아시아 5편, 한국 4편) / 다큐멘터리 3편 (아시아 1편, 한국 2편)

[폐막작]

- <윤희에게> | 임대형 (한국)
월드 프리미어, 2018 ACF 제작지원펀드

[아시아 영화의 창]

- <창평타운> | 왕 징 (중국/싱가포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016 ACF 인큐베이팅펀드
- <오이소의 살인자들> | (일본/홍콩, 중국/한국)
월드 프리미어, 2019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호텔 너바나> | 비자이 자야팔 (인도)
월드 프리미어, 2019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고아원> | 샤프바누 사다트 (덴마크/독일/프랑스/룩셈부르크/아프가니스탄)
2015 ACF 인큐베이팅펀드
- <공상의 과학> | 요셉 양기 노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프랑스)
2013 ACF 인큐베이팅펀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 <남매의 여름밤> | 윤단비 (한국)
월드 프리미어, 2019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 <비밀의 정원> | 박선주 (한국)
월드 프리미어, 2019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 <이 세상에 없는> | 박정범 (한국)
월드 프리미어, 2017 ACF 제작지원펀드

[와이드 앵글-다큐멘터리 경쟁]

- <해협> | 오민욱 (한국)

월드 프리미어, 2019 AND BIFF메세나펀드

- <말할 수 없는> | 기욤 수온 (캄보디아/프랑스)

월드 프리미어, 2015 AND BIFF메세나펀드

- <당신의 사월> | 주현숙 (한국)

월드 프리미어, 2018 AND BIFF메세나펀드

VI. 아시아영화아카데미 결산

1. 기 간: 2019년 9월 26일(목) ~ 10월 13일(일)

2. 주요 참가자: 펠로우 24명, 교수진 3명, 강사진 8명

3. 교수진

- 연출 멘토: 물리 수리아 (인도네시아)
- 촬영 멘토: 카리나 클레시체프스카 (폴란드), 김영노 (한국)

4. 주요 프로그램

① 단편영화제작 및 상영

- <완벽한 아내> | DCP | 10min | Color
- <립스틱> | DCP | 11min | Color

② 클리닉 및 멘토링

- 프로덕션 디자인 (안지혜 미술감독)
- 촬영 (카리나 클레시체프스카 촬영감독)
- 사운드 (한명환 사운드 디자이너, 김용국 폴리 아티스트)
- 편집 (최민영 편집기사)
- 카메라 핸드온 트레이닝 (카리나 클레시체프스타 촬영감독, 김영노 촬영감독)

③ 특강

- 촬영 특강 (김영노 촬영감독)
- 편집 특강 (최민영 편집기사)

④ 교수진 작품시사

- 물리 수리아 감독 | <살인자 말리나의 4막극>
- 카리나 클레시체프스카 촬영감독 | <인플루언스>

⑤ **AFA-MPA 영화 워크숍**

- 미국영화협회(MPA)와 함께 영화 피칭 관련 워크숍 진행
- 특강 멘토: 모스토파 사르와르 파루키 감독, 이한나 PD

5. 장학 프로그램 수상 결과

① **ARRI 장학 프로그램**

- 수상자: 틴 윈 라인 (미얀마)
- 수상자: 링컨 여 (싱가포르)

② **MPA 어워드**

- 수상자 (1등): 함자 방가시 (파키스탄)
- 수상자 (2등): 탄 체 딩 (말레이시아), 누라하야 라티 (태국)

③ **AMI 스페셜 어워드**

- 수상자: 웨인 로 (대만)

Ⅶ. 플랫폼부산 결산

올해 세 번째 해를 맞이한 플랫폼부산은 25개국 아시아영화인들의 활발한 소통의 장으로서 더욱 폭넓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필름메이커 토크를 통해 영화계 거장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독립영화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 투자, 배급, 펀드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작자들의 노하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플랫폼부산의 목적인 참가자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매일 아침 신청자에 한해 플랫폼부산 라운지에서 자신의 작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는 블랙퍼스트 네트워킹을 진행해 참가자들 간의 소통을 독려하고 콜라보레이션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년에 비해 개인 참가자가 약 30% 증가하고 재참가율이 약 15%가 됨에 따라 아시아독립영화인들의 플랫폼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기 간: 2019년 10월 5일 (토) ~ 10월 8일 (화) (4일간)

2. 총 참석 인원: 1,158명

3. 주요 프로그램

- ① 페스티벌 A to Z: 니콜라이 니키티
- ② 필름메이커 토크: 고레에다 히로카즈
- ③ 필름메이커 토크: 박찬욱
- ④ 국제 공동제작 사례연구: 아시아-유럽의 공동제작 이야기
- ⑤ 유라시아에서의 공동제작: 안나 카츠코
- ⑥ 필름펀드토크

⑦ vis-à-vis

⑧ 투자자 토크: 쇼바 산트

⑨ 플랜 비 엔터테인먼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Ⅷ. 포럼 비프 결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지식영화연구소의 출범과 함께 포럼 비프를 새롭게 개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특유의 오랜 포럼 문화의 전통을 잇는 이번 포럼 비프는 한국영화, 아시아영화, 영화기술·산업·정책 포럼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창동 감독, 트린 민하 감독, 제인 게인스 교수의 기조 발제를 포함하여 국내외 여러 학자와 영화인들이 참가한 이번 포럼은 총 1,276명의 청중과 함께 열정적인 토론의 장을 이루어냈다. 이번 포럼 비프는 영화의 바다와 함께 인문학의 바다도 열고자 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오랜 지향을 이루어내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기간: 2019년 10월 5일(토) ~ 11일(금)

2. 장소: 영상산업센터, 동서대학교센텀캠퍼스, CGV 센텀시티

3. 참가규모

- 참가 및 세션: 14개 단체 23개 세션
- 참가자 전체: 1,301명
- 배지 등록: 153명

4. 주제 및 프로그램

① 한국영화 포럼: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포럼

- 동아시아 초기 영화의 수용과 실천 | 기조발제 제인 게인스(콜롬비아대학교 교수)

- 균열과 생성 한국영화 100년 | 기초발제 이창동(감독)

② 아시아영화 포럼

- 남/동남아시아 영화의 미학적 동력으로서 젠더/섹슈얼리티 | 기초발제 트린민하(감독)

③ 영화 기술·산업·정책 포럼

- 국립영화박물관: 한국영화 100년, 미래 영상문화를 위한 투자
- 경계없는 가상현실 영화의 진화
- 한국영화 노동안전 진단과 과제
- 영화기술 마스터클래스 워크숍(부산)
- 복면토크! 2019 한국영화제작 현장은 지금!
- 이슈토크! 한국영화 제작환경의 현재
- 한국의 여성촬영감독들

IX. 커뮤니티비프 결산

영화제 안의 영화제 커뮤니티비프(Community BIFF)는 부산국제영화제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관객중심성을 새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실험하는 스핀오프 영화제이다.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해의 박채성 영화체험박물관장, 조원희 영화감독 외에 김의성 배우를 새롭게 영입해 3인 체제를 구축하였다.

영화제의 고향 남포동 비프광장은 커뮤니티비프의 행사들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 이는 영화인들과 시민들이 격없이 만났던 초창기 부산국제영화제 본연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관객과 영화제 사이의 인터랙티브한 방식을 제시했다. 상충하기 쉬웠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켰다는 점이 '커뮤니티비프 2019'의 가장 큰 성과다.

관객들의 타깃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화 외에도 음식과 인문학 등 폭넓은 관심사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공동체'가 주목받고 있는 추세에 걸맞게 커뮤니티비프는 다원화된 문화 허브이자 관객 친화적 플랫폼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1. 기간: 2019년 10월 4일(금) ~ 10일(목)

2. 장소: 남포동 비프광장 및 원도심 일원 (상영관: 롯데시네마 대영, 부산영화체험박물관, 한성 1918,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3. 상영프로그램 횟수: 72회

4. 야외무대 등 행사 프로그램 횟수: 51회

5. 참가규모: 19,470명

6. 주요행사

①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

- 총 66개 프로그램 접수, 최종 39개 프로그램 확정 (대규모 23개, 소규모 16개)
-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장편극영화에 미개봉작 다수
- 상영작을 테마로 한 다양한 퍼포먼스, 토크, 굿즈 등 이벤트 병행

② 리액션시네마: 반응하는 영화관

- 프로그램: 비프랑 키즈랑, 싱어롱, 댄스 이머시브, 취생몽사

③ 리스펙트시네마: 애증하는 영화관

- 프로그램: 마스터톡, 정두홍 영화제, 한중일 평화삼국지, 단편영화관, DGC Wave, 한국영화100년: 100X100

④ 커뮤니티 이벤트

- 프로그램: 김지미를 아시나요, Remember BUMA: 부마민주항쟁 40주년, Dive in VR, 시민영화촬영체험, bifFM 94.1Mhz, 마을영화제, 살롱드비프(8개), 어크로스 더 시네마, 시네마스포츠, 옥상날다, 시네객잔, ODE to Jazz Cinema

X. 부산국제영화제 참가 게스트

총 참석인원	8,882명
국내게스트	4,446명
해외게스트	1,215명
시네필	1,258명
마켓	2,188명

* 단순 참가(방문)자 제외 & 프레스 제외

XI. 시상

1. 뉴 커런츠상

수상작 1: <롬> / 짠 탕 휘 (베트남)

심사평: 영화 <롬>은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빼어난 카메라 워킹이 합쳐져 놀라운 에너지를 보여주는 뛰어난 작품입니다. 빼어난 미술로 장소를 생생하게 드러내며 촬영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오프닝과 엔딩이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수상작 2: <하이파 거리> / 모하나드 하이얏 (이라크)

심사평: 영화 초반부터 형성되는 팽팽한 긴장감은 엔딩까지 이어집니다. <하이파 거리>는 원숙미가 느껴지는 영화이며, 영화 언어에 대한 감독의 높은 이해와 자신감은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여기에 고른 성비의 출연진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마이크 피기스 (감독 / 영국)
- 심사위원: 카를 오크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예술감독 / 체코)
 - 사말 예슬라모바 (배우 / 카자흐스탄)
 - 리신제 (배우 / 말레이시아)
 - 서영주 (㈜화인컷 대표 / 대한민국)

2. 지식상

수상작 1: <인생의 곡예> / 사마드 술탄 쿠사트 (파키스탄)

수상작 2: <낮선 가족> / 프라디프 쿠르바 (인도)

심사평: 사마드 술탄 쿠사트 감독의 <인생의 곡예>는 수려한 내러티브 장악력으로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양면적인 사회에서 인간의 프라이버시 취약성에 대해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프라디프 쿠르바 감독의 <낮선 가족>은 사회 최하층민들에 대한 따뜻한 책임감을 소박하고 조화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 지식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모흐센 마흐말바프 (감독, 작가, 제작자 / 이란)

허문영 (영화 평론가 / 대한민국)

탄 추이무이 (감독, 배우 / 말레이시아)

3. 비프메세나상

수상작 1: <언더그라운드> / 김정근 (대한민국)

심사평: 한번도 보지 못했던 지하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는 공감각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세분화된 노동의 영역들, 그리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불안을 다층적인 시점과 정교한 사운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상작 2: <누들 키드> / 후어 닝 (중국)

심사평: 후어 닝 감독은 작품 속 인물과 관계를 쌓아가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여 그의 가장 친밀한 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물의 표면에만 머무는 다큐멘터리가 많은 와중에, 관계 구축을 위해 근본적인 노력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 소년 Ma Xiang의 얼굴과 체격은 약 7년 동안 크게 변화해갑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의 변화, 즉 도시의 자본주의가 그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종교의식과 라면의 온기만이 서로 다른 시공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을 밀착해서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라는 점에서 매우 고전적이지만, 그러한 단순함을 통해 이 영화는 완전히 강렬한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 비프메세나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정재은 (감독 / 대한민국)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 / 일본)

앤디 휘태커 (도그우프Dogwoof 설립자 / 영국)

4. 선재상

수상작 1: <안부> / 진성문 (대한민국)

심사평: 올해 한국단편경쟁부문은 현재 한국 사회 젊은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훌륭한 영화들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영화 <안부>도 그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문제제기를 넘어서 영화적 표현의 새로움까지 고민하고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진 친구의 행방을 쫓는 이야기의 서술방식으로 서서히 드러내는 주제, 그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섬세한 감정선, 그를 잘 뒷받침하는 훌륭한 촬영과 매혹적인 엔딩까지. 동시대적 문제와 영화적 표현의 새로움까지 고민한 이 영화에 수상의 영광을 드립니다.

수상작 2: <용의 꼬리> / 사이드 케샤바르 (이란)

심사평: 사이드 케샤바르 감독의 힘 있는 연출과 배우들의 폭발하는 연기력으로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흡입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단편 영화의 묘미와 장점을 십분 살린 이 작품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선재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이수연 (감독 / 대한민국)

푸티퐁 아룬펑 (감독 / 태국)

스테판 키타노프 (제작자, 소피아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불가리아)

5. 올해의 배우상

수상작 1: <에듀케이션> / 김준형 (대한민국)

심사평: 영화 속의 현목을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잔상과 여운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수상작 2: <에듀케이션> / 문혜인 (대한민국)

심사평: 주인공 성희가 맞이한 혼동스럽고 복잡한 관계와 심리를 섬세하고 예민한 연기력으로 빼어나게 표현했습니다.

*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배종옥 (배우 / 대한민국)

정재영 (배우 / 대한민국)

6. KNN관객상

수상작: <69세> / 임선애 (대한민국)

7. BNK부산은행상

수상작: <페블러스> / 멜라니 샤르본느 (캐나다)

8.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수상작: <달려라 소년> / 밀란 압디칼리코프 (키르기스스탄)

심사평: 자신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달리는 소년의 눈을 통해 고군분투하는 국가의 모습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PRESCI)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프렘찬드 포탕가디 (영화 평론가 / 인도)

일레인 게리니 (영화 평론가 / 브라질)

서곡숙 (영화 평론가 / 대한민국)

9.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수상작: <남매의 여름밤> / 윤단비 (대한민국)

심사평: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심사위원단은 총 13편의 선정작 중 새로운 감독에게 주목하고 재능을 조명하는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의 가이드라인과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 작품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은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3대에 걸친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심도 있게 풀어내는 젊은 신진여성감독의 데뷔작으로, 개인적이면서도 성숙하고 인상적인 연출력이 돋보입니다. <남매의 여름밤>은 여성 캐릭터의 복잡한 삶과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성장 영화입니다. 여기에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의 감정과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따뜻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통해 할아버지 캐릭터의 특성을 깊고도 치밀하게 묘사한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본 주인공은 마침내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비로소 진정한 여성이 되어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상 심사위원

- 심사위원: 응오 프엉 란 (영화 전문가 / 베트남)

사브리나 바라세티 (우디네극동영화제 집행위원장 / 이탈리아)

김은영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 / 대한민국)

10. KTH상

수상작 1: <럭키 몬스터> / 봉준영 (대한민국)

심사평: 웰메이드 B급 장르 영화로 유려한 블랙코미디가 돋보이는 작품

수상작 2: <남매의 여름밤> / 윤단비 (대한민국)

심사평: 관객에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생생한 디테일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장통을 보듬는 따뜻한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

11. KBS독립영화상

수상작: <찬실이는 복도 많지> / 김초희 (대한민국)

심사평: 올해 13편의 영화는 각자의 세계, 다른 스타일, 다른 형식, 다른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긴 토론을 거쳐 힘겹게 김초희 감독의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수상작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영화에 대한 자기 경험에서 시작하여 자아 성찰에 이르는 여행을 보여주는 이 작품에 저희 심사위원은 만장일치로 KBS독립영화상 작품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2. CGV아트하우스상

수상작: <찬실이는 복도 많지> / 김초희 (대한민국)

심사평: 올해 출품된 영화 중에서도 여성 영화인들이 만든 여성 영화들이 약진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 놓인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 중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야기 전개 그리고 안정적인 연출과 연기가 어우러진 흥미진진한 작품이었습니다. 주인공 찬실이만큼 장국영을 다시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영화에 대한 애정이 듬뿍 살아있는 영화의 영화입니다.

13. 한국영화감독조합상

수상작 1: <남매의 여름밤> / 윤단비 (대한민국)

심사평: 인간이 상처와 관계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섬세한 시선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배우들이 보여주는 뛰어난 연기와 그 연기를 이끌어내는 감독의 집요함,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삶의 통찰이 돋보이는 영화입니다.

수상작 2: <찬실이는 복도 많지> / 김초희 (대한민국)

심사평: 실패하는 밑거름을 통해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재기발랄한 영화적 상상력, 세련된 유머와 따뜻한 정서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입니다.

14. CGK&삼양XEEN상

수상작: <경미의 세계> / 김길자 촬영감독 (대한민국)

심사평: <경미의 세계> 촬영은 일관된 톤과 룩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카메라는 영화 속에 부재한 경미(엄마이자 딸)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끌어갑니다. 담담하면서도 강렬한 구도, 파워풀한 클로즈업 샷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잔상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제작환경에서도 주관을 잃지 않고 똑심 있게 비주얼을 책임진 촬영감독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15. 시민평론가상

수상작: <남매의 여름밤> / 윤단비 (대한민국)

심사평: 가족 구성원 모두를 배려하는 감독의 이해심이 돋보이며, 한 가족의 일상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관찰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어느 여름 밤, 할아버지 집이라는 회고적 공간에서 관객 모두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보기 드문 성취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16.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케 세아 레이!> / 후안 솔라나스 (아르헨티나)

심사평: 여성인권과 낙태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작품입니다. 아르헨티나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성들이 마주하는 종교와 국가의 합일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